# 最初의 十番棋

## 時事新報主催 十番棋 第1局

33年 3月 29日～4月 21日 新聞에 揭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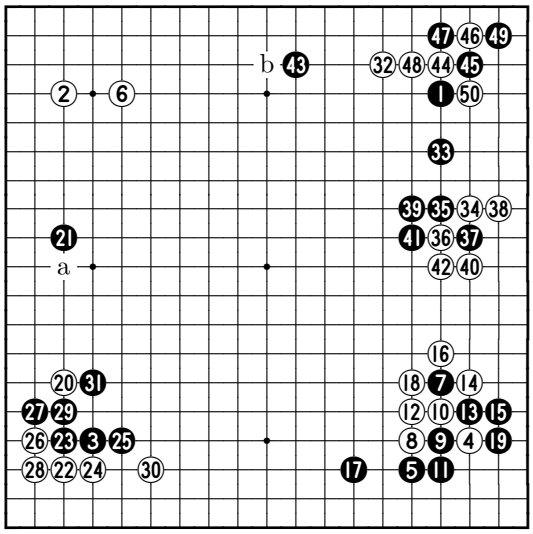
互先 五段 木谷 實
先番 五段 吳 淸源

## 第 一 譜(1 ～ 50)

本因坊秀哉名人 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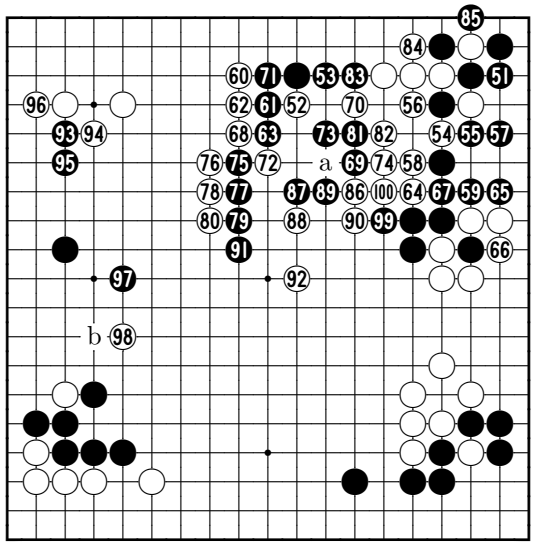
**白20**으로 멀리 뻗쳐간 것은 퍽이나 迫力强大한 手段이기는 하나 黑으로부터 **21**로 협공당하여 後方과의 연락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은 自明한 일. 그렇다면 **20**으로는 **a**, 아니면 **b**로 要點을 차지하여 이후의 雄飛에 對備하고 서서히 局勢의 趨移를 靜觀하면서 유유히 두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.

**白34**로 다가서는 것도 아랫쪽 밑이 터져있는 意味가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不可能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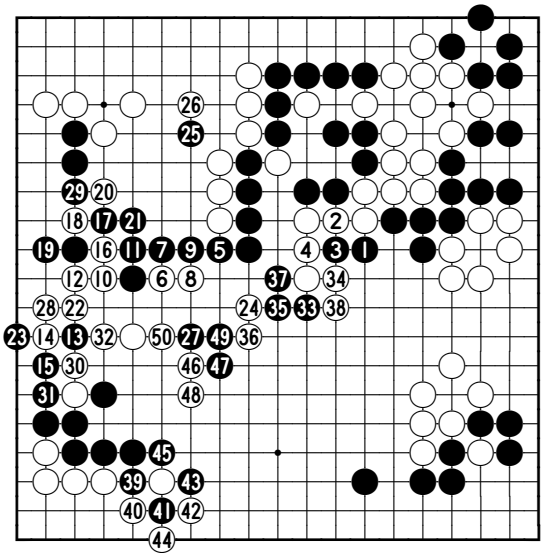

## 第 二 譜(51 ～ 100)

**白62**로 미는 것은 좀 무겁다. **a**로 進出하는 것이 輕快. 黑**99**이하의 運石은 俗된 맥으로 時機尙早인 것같다. 잠시 보류하고 **b**로 응하는 것이 재미있을 듯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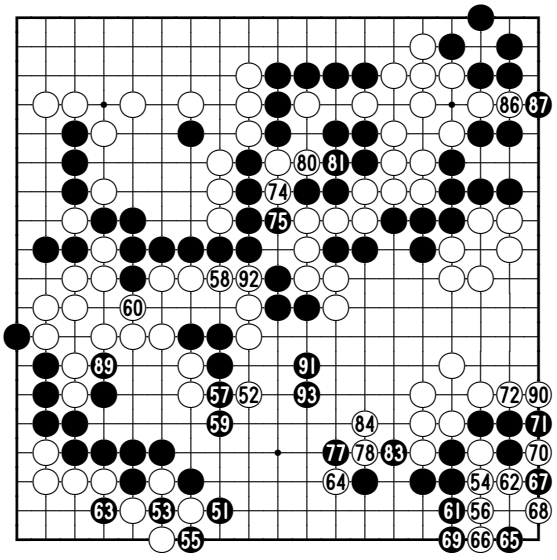
## 第 三 譜(101 ~ 150)

白**24**로 달렸으나 實質的인 이득은 없다. 알기쉽게 **28**로 잇고 黑**29**, 白**30**으로 응접하여 재빨리 安全地帶의 구축에 힘써야 했다.



## 第 四 譜(151 ~ 193)

白**52**는 어떻든간에 **53**로 이어서 最後의 一戰을 試圖해 보는 수 뿐이다. 黑에게 **63**으로 끊기어 이 一團의 白이 잡히기에 이르러서는 黑의 위압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어, 드디어 無念의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다.



❼❸, ❼❾, ❽❺패때림(67)
⑦⑥, ⑧②, ⑧⑧패때림(70)

193手 끝 黑 不計勝

(註) 이 十番棋는 39年에 開始된 讀賣新聞主催의 十番棋와는 달라 置數고치기가 아니다.
日本棋院에서는 이전의 慣習이었던 置數고치기制를 폐지하고 段差에 의한 對局制度로 轉換했다. 같은 五段끼리로 시작한 本 十番棋는 三勝三敗가 된 始點에서 木谷五段이 昇段, 互先으로 두는 데에 支障이 생겨 중도에서 그만두게 되었다.